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價 壹個月八拾錢 參個月貳圓 ... 廣告料 ...

發行所 京城府 ... 朝鮮日報社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illegible]

社說 思想戰線에 立하야 (上) 民衆에게 訴함

一

天下의 大勢는 未久에 爆發하라는 活火山의 斷地層모양으로 震顫과 動搖를 마지아니한다 그리고 世界의 大衆은 不安과 危懼의 雰圍氣안에서 焦燥히 헤매이면서 光明의 進路를 發見하며 가지고 最後의 安定을 어드려는 奮戰을 쉬지아니한다

그런데 자못 動搖를 마지아니하는 時局은 傳統과 因襲의 弊瘼아래에 重重히 包藏되야 잇는 禍因과 罪業을 燒却하여 버리는 最後의 淨化作用의 洗禮를 밧기 前에는 安定될 可望이 업슬 것이다 지금 엇더한 肝膽者가 잇서 엉성스러운 魔紗를 뒤집어 쓰고 平和와 彌縫을 爲하나 또한 엇더한 暴虐者가 잇서 무서운 暴力으로써 壓迫과 屠殺을 恣行하면서 苟安과 姑息을 耽한다 하드래도 그건 부즐업는 妄想이 아니면 無謀임이 分明한 바이다 오즉 世界大衆은 偉大한 歷史的 推進力의 鞭韃을 바드면서 그 必然의 行程을 밟어 最後勝利의 戰地를 向하야 突進하고 잇슬 뿐이다

二

動搖에서 安定을 壓迫에서 自由를 또한 混沌에서 統一을 暗黑에서 光明을 追求憧憬하는 것은 人性의 그 本然한 바이니 現下의 動搖, 震顫을 마지안는 天下大勢에 處하야 不安危懼의 雰圍氣에서 헤매이는 世界大衆이 새로운 歷史的 機軸을 붓들고 必來의 勝利를 目標로 하고 戰程을 進向하는 것은 自然의 勢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行動은 思想에 依하야 統律되는 것이오 사람의 思想은 生活環境의 反映임이 事實이다 그럼으로 오늘날 世界大衆의 戰程을 規律하고 策勵하는 것은 大衆生活의 反映인 思想이 될 것은 勿論이다

이것은 이제 새삼스러히 唯物史觀을 鮮說할 것 업시 또한 資本主義經濟組織의 缺陷을 指摘할 것 업시 大衆의 實生活이 實證하는 바이다 어수선한 血統關係를 陳腐한 歷史광주리에서 차저내고 말하는 自身도 分明히 모르는 幽玄한 觀念世界를 說敎한들 그것이 무엇보다도 强한 힘으로 必然의 法則으로 展開되는 實生活의 反映인 그 思想의 潮流를 막지 못할 것은 多言을 不俟할 바이다

三

그러면 現下의 朝鮮大衆의 戰程에 잇서 規律 또는 策勵하는 바 思想은 엇더한 것일가

天下의 大勢가 朝鮮이라는 地域을 除外할 수 업고 歷史의 推進力이 朝鮮人을 例外에 두지 아니하고 大公無私하게 進出되는 以上 一言으로써 斷言할 수 잇는 것이다 「朝鮮大衆의 戰程을 規律하고 策勵하는 그 思想은 世界大衆의 그것과 同一할 것이라」고 그러타!

그러나 오늘날까지 大衆의 生活이 集團的으로 다 各其 風土 地味 氣候 等 自然的 條件이 相殊한 地域에서 言語 風俗 文化 等 人爲的 條件의 特殊性을 保有하면서 生存發達하여 온 까닭에 最高理想으로서 千遍一律的으로 各集團의 生活形式의 共通性의 反映인 思想이라 하드래도 엇더한 地域에서 特殊性을 띄인 集團生活의 發達階段과 아울러 人爲的 制度의 差別相을 豫定치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

그럼으로 朝鮮에서는 그 自在의 特殊性과 差別相을 前提로 하고 論하는 것이 妥當한 바이다

四

오늘날 우리는 民族的 自主力을 失하는 同時에 社會生活의 去勢를 當한 者임으로 모든 方面으로 엇더한 畸形的 不自然 狀態에 잇는 것이 事實이라 할 것이다 經濟上으로 文化上으로 따러 思想上으로 生活上으로 不安 混沌을 免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朝鮮大衆도 世界大勢가 歷史的 推進力의 鞭韃을 밧는지라 少數이나마 民衆의 戰術을 指導할만한 識見을 가진 先覺者를 가젓다 아니라 우리는 벌서 굿센 信念을 품고 우리의 最後勝利의 陣地로 進向하려는 意氣와 決爭을 가진 者이다

아무리 他集團의 權力者가 奸智를 弄하며 强壓을 加한들 우리의 歷史的 進路를 能히 拒否할 수 업슬 것이다 하물며 浮薄한 名利에 出沒하는 走狗輩가 機會에 投合하야 跳梁 跋扈하면서 自足을 自嘲하는 蠢蠢的 蠢動을 試한들 大衆의 確乎한 信念을 敢히 움직일 바이랴 만은 思想戰線에 立한 吾人은 朝鮮民衆의 구든 信念을 더 굿게 하기 爲하야 沈滯한 意氣를 더 喚發하기 爲하야 이에 다시 絕叫하려 한다

맑스氏의 最後的努力 臨時內閣이라도 組織코자

(伯林九日發) 獨逸內閣의 首班을 缺한지가 旣히 三十一日間에 及하얏스나 『맑스』氏는 아즉까지도 臨時內閣조차 組織치 못하엿슴으로 九日에는 組閣키 爲하야 最後的 努力을 하는 中이더라

伊國各地에 反政府熱 首相의 選擧干涉拒絕

(羅馬九日發) 『아펀치네』의 反對黨은 『뭇소리니』 首相은 獨裁政治를 行하는 者이라 하야 選擧에 干與하기를 拒絕하고 米國獨立宣言과 類似한 宣言書를 發表하야 現政府에 反對하는 中이나 動亂을 煽動할 意味가 업다 그런데 動亂이 絕하면 이 國粹黨의 下等政治下에 가장 狂風한 罪惡이 行할 터임에 鑑하야 民權의 自由를 擁護할 最高의 道義的 要求를 主張하는 人民의 反抗을 代表하는 것이라 說明하얏다 그래서 伊太利國內의 날은 殆히 今에 表面은 稍히 靜穩하나 아즉도 頗히 緊張한 模樣이더라

各代表의 重要演說 藏相會議第一回合席上에서

(쎌도無線八日發) 聯合國藏相會議第一回合席上에서 佛國財政長官 『크레만텔』氏는 一場의 演說을 하야 『獨逸의 『또스』案에 依한 義務를 迅速히 履行한 것은 承認할지나 將來의 賠償金支拂에 就하야는 아즉도 不安하다』 陳述하얏고 英國藏相 『차칠』氏는 『本會議의 目的은 爲先 其基礎를 堅固히 한 後 聯合國各自의 滿足할 解決案에 達할 雰圍氣를 造하라』 喝破하얏고 米國代表 『하릿크』大使는 『同會議가 滿足한 結果를 擧함은 其使命이다』 陳述하얏다

英佛兩相會見

(쎌도無線八日發) 財政長官 『크레만텔』氏는 英國藏相 『차칠』氏와 會見할 際에 佛蘭西의 現狀을 詳述하야 米國으로부터의 佛國債務償却에 就하야 停止한 것을 告하얏더라

阿片會議 再開延期

(쩨네바九日發) 國際聯盟은 英國外相 『쳄바렌』氏의 要求에 依하야 阿片會議再開를 來十九日까지 延期하얏는데 右는 英國首席代表 『솔스베리』卿이 狩獵할 際에 負傷하야 臥床中인 所以이라더라

全米移民會議 召集否認

(東京電) 先般來 日本新聞에 米國下院移民委員會는 移民政策을 統一할 目的으로 全米會議를 米國에 開催하고 西半球諸國을 召集할 計劃에 承認을 與할 旨를 傳하얏스나 右에 關하야 今般 在日本米國大使 『방크로푸트』氏로부터 幣原外相에게 右는 全然 無根의 巷說인 旨를 左와 如히 通牒하얏더라

啓上陳者 米國下院에서 全米移民會議召集의 決議가 可決되얏다는 報道가 最近 當地新聞에 揭載되얏스나 右와 如한 決議可決이 斷無한 旨로 今回 本國政府로부터 來電이 잇슴으로 玆에 通告함

更히 『이리노이스』州選出 『색리덴』氏가 復臘米國議會에 提出한 太平洋沿岸의 白色民族會議召集決議는 可決될 機會가 絕無하리라 하얏더라

普選案에 政府側不讓議定

(東京電) 九日閣議에서는 普選案에 關한 樞府精査委員會에 關한 態度措置等에 就하야 審議한 結果 今後 更히 委曲을 盡하야 樞府의 諒解를 求할 事、字句修正等 重要치 아니한 것의 一部修正에는 반드시 反對치 아니하나 普選의 選擧權中 納稅資格撤廢에 就하야는 一步도 讓치 아니하기로 政府對樞府方針이 決定되얏고 尙且 政府는 可及的 普選案을 固執하야 어대까지든지 樞府顧問官을 說破하기로 議定하얏더라

家族戶主에 選擧被選擧權 附與削除될 듯

(東京電) 八日 普選案에 對한 樞府精査委員會의 爭論的 質問으로부터 보면 樞府는 無條件普選을 歡喜하지 아니하고 家族의 戶主에 選擧被選擧權을 附與함은 憲法精神에 悖戾되며 且 日本特有의 議會制度를 破壞할 憂慮가 잇다 하야 大勢는 同案削除에 傾하는 中이며 又 納稅資格撤廢에 就하야도 樞府로

定例閣議經過

(東京電) 九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 開會하야 外相으로부터 最近外交經過特히 日露交涉再開에 就하야 報告가 잇섯고 그 뒤에 若槻, 岡田兩相으로 八日樞府普選精調委員會의 經過를 詳述한 바가 잇섯스며 高橋、犬養兩相은 新聞의 傳하는 獨立生計로써 制限할 意見이 잇느냐 質問하야 內相으로부터 아즉 意見이 업나 答하고 其他 二、三의 質問應答이 잇섯고 今後方針에 就하야 協議를 한 後 左의 勅令案及人事를 決定하고 午後一時에 散會하엿더라

一、陸軍武官官等令中改正件 勅令

師團廢止其他 重要問題協議次

師團長會議召集

(東京電) 宇垣陸相은 師團廢止、行政整理에 伴하는 諸問題、靑少年의 軍事訓練 其他 重要軍事問題에 就하야 方針을 述함과 共히 意見을 交換코자 來十三日부터 三日間 師團長會議를 召集할 터이라더라

平田內府後任에 高橋氏를推코자

(東京電) 內大臣 平田東助伯爵 任後의 後任으로서는 淸浦子、山本伯說이 잇더니 政友會一部에는 官僚其他와 氣脈을 通하야 高橋農相을 內府로 推上하야 政友會領袖의 大臣病을 治療하는 同時에 黨內에 空氣를 緩和코자 하는 豫定으로 橫田法相이 西園寺를 訪問함이 며 또 熱海方面에 在한 元老와 會合하는 것이 다 이것을 劃策함이라는 所聞이 잇더라

敎育增額問題 善後協議

(東京電) 高橋、犬養、濱口三大臣은 九日午前九時半부터 閣議開會前 約三十分에 亘하야 義務敎育國庫負擔增額問題에 關하야 與黨側의 熱烈한 要望과 輿論의 沸騰에 鑑하야 善後策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協議한 바 잇섯더라

次官會議開催 諸法律案質答

(東京電) 八日의 定例次官會議는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各省에서 議會에 提出할 諸法律案、諸建議案、議會에 在한 質問의 答辯、政府委員으로서 北海道長官及司法省會計課長을 補充할 것 等에 對하야 審議決定하고 更히 各省의 震災委員會를 廢止하기로 決定하엿더라

實業學校 卒業檢定試驗 本年부터 實施

(東京電) 文部省은 十四年度부터 實業學校卒業檢定試驗制度를 施行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右는 專門學校入學檢定試驗에 準할 것으로서 本年度의 受驗者는 約三千名假量에 達하리라더라

海軍觀測將校 養成準備

(吳電) 華盛頓條約의 成立으로 各國共히 其制限地位에서 主砲의 着彈距離增加研究에 腐心中인데 現今 着彈距離는 二十基以上에 達하얏슴으로 開戰한 境遇에 敵의

駐露佛國大使 赴任發程

(『쎌드』八日發) 駐露佛國大使 『엘뱃드』氏는 今朝에 莫斯科로 向하야 出發하엿더라

飮料水協議에 內務部長도 參席

오래동안 問題中이든 萬頃江沿岸의 益山郡春浦面과 金堤郡白鷗面 三面의 飮料水問題에 對하야 그 相對者인 益沃水利組合과 紛爭이 不絕하얏스나 如何한 處理가 업슴으로 그 問題當局에 一任하야 處置를 바라든바 九日下午一時에 道當局의 干涉으로 益山郡廳에서 兩方의 關係者代表가 會合하야 解決策을 協議하리라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道에서는 上瀧內務部長外二人이 臨席하리라더라(裡里)

岩泰小作會 常務委員選定

全南務安郡岩泰小作人會에서는 去六日午後七時에 第二會委員會를 開催하엿는데 臨時議長 徐東洙氏의 司會로 左의 常務執行委員十一人을 選擧하고 同會規施行細則을 通過한 後 同會館改築設計外지 議定하엿다더라

▲庶務部 金相奎 同外交 朴福永 同敎護 朴用奎 同宣傳 金正順 同調査 金文日 ▲經理部財務 徐丙哲 同生産 朴弼善 同消費 金云宰 同工場 朴佐一 ▲敎養部同敎授 徐東洙 同編輯 徐東五(木浦)

光陽에 講論會

全南光陽郡에서는 有志諸氏의 發起로 去十二月十三日午後三時에 當地光陽靑年會舘에서 講論會創立總會를 開催하고 金鎭玉氏司會로 趣旨를 說明하고 會則을 通過한 後 會員感想談으로 河在鳳、金泰範、金鎭玉 三氏가 熱辯을 吐하고 任員選擧는 左와 如히 하얏다더라

會長 金相孝、副會長 鄭光浩、講論部長 金鎭玉、經理部長 朴準性、演藝部長 白樂哲、顧問 朴準暘、辛命俊(光陽)

光州驛業績

全南線光州驛에서 去十二月中에 取扱한 營業成績은 左記와 如하다더라

▲乘車人員 二九、九七三人 ▲手荷物斤數 六一、六七九斤 ▲貨物噸數 四、六九九噸 ▲客車收入 一〇、三七五、六二錢 ▲貨車收入 八、二七一、三二 ▲雜收入 二八〇、三九 ▲收入合計 一八、九二七、三三 (光州)

群山繩叺落札價格

今月十日에 群山의 繩叺은 左의 價格으로 府內榮町 金達鴻氏에게 落札되엿더라

特等 二十二錢八厘 一等 十九錢四厘 二等 十六錢 三等 十二錢五厘 (群山)

扶安靑年定期總會

一月四日 同會舘에서 全北扶安靑年會에서 今年度定期總會를 去四日에 同會舘內에 開催하얏는데 創立當時의 制定한 規則을 改正하야 會長制를 委員制로 施行하기로 하고 年齡制限問題에 對하야는 一時紛爭이 잇섯스나 委員會에 一任하기로 하고 다음에 臨時總會를 召集하기로 하엿다더라 (扶安)

全北旱害救濟事業 水利事業費五萬圓

全羅北道에서 旱害救濟方策으로

漁業組合長更迭

大盛會를期한 學藝雄辯大會

南川江船橋에 燈臺를新設

惡會社撲滅策

慶南道廳 移轉協贊會

三千浦 自動車賃引下

春川엡윗靑年諸君 아覺醒하라

啄木鳥 投稿歡迎

行政整理와 慶南課係廢合

富平市場改設

巡講團을歡迎

第二回 迎日蹴球大會

前醴泉郡守의寄附

洞約會에서 衣服首飾을改良

平南保留炭의 日本輸出解禁

南市에創立된 學生修養會

客月郵便局業績

金剛山에 勞農同盟會

元山에도 氷上競技大會

南浦線時間改正

成川印刷所發起

南浦酒商主組合總會

關北各線에 汽船을增配

安邊親睦會

盛大한 發會式

江華鍾紙素入劇 處處盛況

仁川穀物檢查

四百萬圓入超

元山貿易額

仁川客月貿易

後場小往來

期米 仁川期米 第二報

大阪場況 九日後場

各地止價

阪仁氣配

各限候合